선거가 우선…민주, 내홍 일단 봉합

지도부 '86 용퇴론' 등 내부 갈등
비대위 사과·쇄신 약속 메시지
지방선거 패배시 재분열 불가피

지방선거를 앞두고 '86 그룹 용퇴론' 등을 두고 불거졌던 민주당의 내홍이 간신히 봉합됐다. 일단 선거를 치르고 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대패한다면 봉합됐던 당의 내홍은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페이스 북을 통해 "어제 우리 당 지도부가 제가 제안한 '5대 혁신안을 모두 수용했다"며 "혁신안을 수용해주신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님과 비대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밤 당 비대위가 긴급 간담회를 거쳐 사과 및 쇄신 약속 메시지를 내놓음에 따라 자신의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판단하고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박 위원장이 제안한 쇄신 과제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되, 선거 전에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 '선거가 끝난 뒤 당내 공감대를 형성해 이를 추진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택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당의 혁신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마음 졸였을 우리 당 후보들께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한마음 한 뜻으로 지방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불거진 민주당의 내홍 국면도 일단 봉합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대패할 경우, 혁신론보다 책임론이 우선되면서 봉합됐던 내홍은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을 둘러싸고 친문(친문재인), 친이(친이재명) 등 당내 계파 간의 힘 겨루기 양상이 전개될 경우, 내홍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박 위원장이 주장한 '86그룹 용퇴론'은 폭발성이 큰 민감한 사안이다. 민주당의 허리가 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호남에서도 86그룹 의원들이 10여 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특히, 박 위원장 등은 당내 소수 세력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들의 혁신 주장이 현실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있는 박 위원장 등이 전면전에 나설 경우, 86 그룹 등 당내 기득권 세력의 입지도 크게 좁아질 수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4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제가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나가겠다'고 하는 등 자신이 전면에 서서 당을 쇄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전날 간담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방선거 이후 당 쇄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혁신위'를 띄울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혁신위원장 인선 문제 등을 놓고 또 다른 갈등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86 그룹 등 당내 기득권 진영에서는 박 위원장 등이 혁신위원장을 맡는 것을 불편해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지방선거 결과가 민주당 내홍의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에 대패할 경우, 과감한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고 선전한다면 질서 있는 대여 전략 마련 등으로 당의 진로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사전 투표하는 시민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27일 광주시 동구 동명동 아이플렉스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여성장관 발탁 순발력 좋은 윤대통령, 호남만 배려하면 박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언급
정치 활동 재개 신호탄 관측도

지난 10일 국가정보원장직에서 물러난 박지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 장관을 발탁한 것에 대해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순발력이 보통이 아니다. 이제 호남만 배려하면 국민의 박수가 쏟아질 것"이라고 언급,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박 전 의원의 언급이 사실상 정치 활동 재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지도부 책임론 등으로 내홍이 격화될 경우, 박 전 의원의 '역할론'이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 정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박 전 의원이 민주당에 복귀, 자리를 잡는다면 대여 전략 마련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 주류 세력의 박 전 의원에 대한 비토 정서가 상당하고 당내 지지 기반도 예전 같지 않아 이 같은 정계복귀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전 의원은 29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 재개라기 보다 대한민국과 민주당, 호남을 위해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박 전 의원은 "조만간 복당 신청과 함께 방송 등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6·1 지방선거 라운지

이정현 "도지사 바꿔 민주당 정신차리게 해야"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지사 후보는 29일 "도지사를 바꿔 민주당을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도민은 민주당 표 찍어주는 머슴이 아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 도민이 주인이고 민주당이 머슴이다. 주권자는 전남 도민이고 권력도 민주당이 아니라 전남 도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전남 도민 무섭다는 것을 한 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에서 6·1 지방선거의 의미는 변화"라며 "전남 도민들이 조용한 선거혁명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정선 "연구년, 적법하게 신청 허가 받은 것"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후보가 연구년을 신청하고 출마한 것과 관련 지난 28일 "연구년은 적법하게 신청, 허가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교육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출마를 앞두고 휴직을 고민했으나 선거 출마는 휴직 사유가 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대학 공식 제도인 연구년을 신청해 허가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년은 대학교수들이 6개월 또는 1년간 강의를 하지 않고 자신의 전공 분야 등 연구를 하는 제도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를 문제삼은 데 대해 이 후보는 "연구년이 종료되면 올 연말까지 '광주교육발전 방안'이라는 연구 결과보고서를 대학 측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적법한 연구년 신청과 허가 사안을 마치 부도덕한 일처럼 부풀려 선거에 개입하는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단체에)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여야, 지방선거 분수령 경기서 총력전

국힘 이준석 대표 안산 등 선거전
민주 이재명 인천서 선거 운동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승패의 분수령이 될 경기지역에 화력을 집중하며 막판 총력전을 폈다.

국민의힘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대표)를 비롯한 중앙선대위 지도부는 마지막 주말인 이날 경기지역에 집결해 투표 독려 활동을 벌이며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이 대표는 오전 경기 안산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문재인정부와 선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일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라고 후보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부동산과 교통환경 개선 등을 과제로 꼽으며 "큰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은 힘 있는 여당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갖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는 "본투표까지 사흘 남았다"고 강조한 뒤 "무엇보다 소중한 한 표를 꼭 본투표에서 행사해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한다"며 투표 독려에 나섰다.

이 대표의 이날 경기 유세 동선이 비교적 당세가 있는 북부의 접경 지역 위주로 짜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오전 안산 회의 이후 김포, 파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순으로 서북부 일대 7개 지역을 훑는 강행군을 폈다.

전임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며 민주당 후보들을 향해서도 더욱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민주당 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둘러싼 이재명·송영길·김동연·오영훈 후보 사이 엇박자를 언급하며 "콩가루"라고 몰아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차량기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9호선을 계양테크노밸리까지 지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계양구는 공항철도, 공항고속도로, 쓰레기 도로, 수도권 순환도로, 경인아라뱃길 같은 국책사업을 위해서 길을 내주기만 했다"며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 제한, 소음피해까지 각종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치러왔던 만큼 이제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철도 계획이 없는 곳이 계양테크노밸리"라며 "이곳 차량기지에서 테크노밸리 중심부까지 거리는 약 5㎞에 불과하다. 9호선을 연장하면 계양테크노밸리뿐 아니라 주변 동양동을 포함한 계양2동은 역세권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재차 밝히며 수도권 서부 발전을 완성하겠다고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회사 사정상, 22억, 신안동 대지, 매매

- **광주 북구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176평, 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득 (지하1층 지상10층, 72호실)
- **근린상가 등 타업종 변경가**
- 현, 주차장 영업 中

(주)미르. 010-8902-7900